

아베 총리 미국 방문... 의회연설 주목

일의 보통국가화·美的 중국 견제...양국 속셈 맞아 떨어져 내일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과거사 사죄 가능성은 낮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동부 보스턴 로건공항을 통해 입국, 장장 7박8일(귀국길 포함)의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 헌정 총리로는 9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찾은 아베 총리의 발걸음은 전후 70년을 맞아 동맹격상을 통한 '미·일 신(新)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과거사에 진정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제약받은 '보통국가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존 케리 국무장관 사저에서 만찬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하는 등 미국 정부에 대해 '국빈 방문'(state visit)에 준하는 파격적 예우로 아베 총리를 맞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양국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포함된 이번 이벤트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및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촉진, 강화하는 절호의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워싱턴의 우산 아래 군사적 제약이 없는 이른바 정상국가가 되려는 일본의 야심과 중국의 급부상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부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전용기편으로 출국하기 전 도쿄 히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의 목적에 대해 "일본의 강한 연대를 살려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겠다"며 합동연설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25명은 지난 23일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연명서한을 작성, 사사에 견어지르 주미 일본대사에게 보내는 등 미국 정치권내의 반발도 거세다.

또한, 뉴욕 타임스(NYT)가 20일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정면 비판하는 사실을 게재한 데 이어 워싱턴 포스트(WP)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는 등 미국 조야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한·미·중 시민단체가 워싱턴DC에서 대규모 연대집회를 열기로 아베 총리의 사죄를 촉구하는 압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먼저 아베 총리는 2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간

안보협력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촉진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등 문제로 인해 TPP 협상의 타결이 발표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날 낮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을 함께하고 당일 저녁에는 백악관 공식만찬(State Dinner)에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연석회의(2+2 회의)를 열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을 통해 미일 군사작전범위에 중일간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에 대비한 도서방위가 포함될 경우 양국의 군사동맹은 한단계 격상되며, 미국도 일본을 이른바 대리자로 내세워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재균형 전략의 큰 디딤돌을 놓게 된다.

아베 총리의 미 방문 하이라이트는 29일 열리는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다.

1941년 진주만 기습공격을 시작으로 한 태평양전쟁의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정상이 전후 70년만에 승전국의 의회 무대에서 국제평화를 위한 안보협력 구상을 전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영어로 40분간 할 연설에서 미일 동맹의 흔들림없는 발전과 평화화합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구현 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염원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한국의 식민지배와 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만주사변을 위시한 중국침략 등 과거 군국주의 도발에 대해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미전쟁은 깊이 반성하지만 아시아 주변국가를 위한 공개적 사과는 비껴감으로 과거사를 교묘히 물타기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계의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7일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 및 홀로코스트박물관 방문 등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일정도 있다. 2차 대전에 자책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가들의 사과요구에 물타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29일에는 일본 우익논리를 전파해온 사사키와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일본의 안보정책을 주제로 연설한다. /연합뉴스



아베 일본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위해 26일 오후 도쿄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총리 방미 5대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는 과연 과거사 문제를 사죄할 것인가’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과거사 문제=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과거사 문제와 이와 관련한 역사적식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침략전쟁으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언급할지 주목된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반성’(remorse)이라는 용어만 썼을 뿐 ‘사죄’(apology)라는 표현은 없었다.

◇미·일 교역 증진 문제=미·일 교역 증진 문제도 주 현안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WSJ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근접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TPP 협상 진전을 발표하기를 희망한다. /연합뉴스

◇자위대 재량권 확대=국방 분야에도 세계적 이목이 쏠려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군사동맹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본 해역 밖에서 자위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미 항의집회=방미 항의집회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시민단체 등은 미 의사당앞을 비롯 아베 총리가 방문하는 보스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잇따라 연다.

◇아베 인기는=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에서 ‘스타’로 부상할지도 관심거리다. 해마다 많은 외국 지도자가 워싱턴을 방문하지만 외교계를 넘어 관심을 끄는 경우는 드물다. 인기의 척도는 의회 연설과 백악관 공식 만찬 때 의원과 유명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합뉴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보고서 나와

미 북한인권위원회 발표 테러단체 무기 공급 주장

북한이 테러 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조슈아 스탠턴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테러의 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북한을 다시 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부시 행정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해제됐다.

보고서에서 스탠턴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듬해인 2009년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몇 척이 적발됐으며 이는 북한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에 무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선박에 있던 무기들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포함해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단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비롯한 몇몇 사이버 공격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레그 스킨라트 HRNC 사무총장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2008년 이후 북한은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테러 사용을 늘렸으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특히 인권운동가나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남한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주민들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라며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한편, 미국-쿠바의 관계 정상화 선언에 따라 지난 14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만 남았다. /연합뉴스

중국 국유기업 대규모 통·폐합 전망

동종 업종끼리 112→40개로 출혈경쟁 방지·경쟁력 강화

현재 112개에 달하는 중국 중앙국유기업이 앞으로 대규모 통폐합 과정을 거쳐 4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경제전문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권위있는 소식통’을 인용, 국유기업 감독을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최근 국유기업 추가 중점개혁 방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국자위가 이미 개혁에 착수했고 (관련 문건을)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112개의 중앙국유기업은 공익성 기업과 상업성 기업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업종의 국유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서로 출혈경쟁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로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도 이와 관련,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기업들



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당국은 근년들어 ‘공통기업’으로 불리는 국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지난해 말 양대 고속철도 제조사인 중궈베이차(中國北車·CNR)와 중궈난차(中國南車·CSR)를 합병해 새로운 ‘공통 국유기업’으로 출범시켰다.

또 중국의 양대 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학(中國石化·SINOPEC)과 중국석유천연가스(中國石油·CNPC), 중국해양석유(中國海油·SINOOC)와 중국화학(中國化工·CHEMCHINA)의 합병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생물 절편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구중구포 절편 600g 120,000원
- 환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읍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경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여	남	여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화남명동 8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